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연구

이유리

문화재청 인천항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서지학 전공

dreamy6214@naver.com

I. 머리말

II. 17세기 일본의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전래와 수용

III. 상업 출판을 통한 조선본 수용 양상

IV. 맷음말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I . 머리말

『근사록(近思錄)』은 1178년(순희(淳熙) 5)에 주희(朱熹, 1130-1200)와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초학자를 위해 북송대 유학자인 주돈이(周敦頤, 1017-1073)·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장재(張載, 1020-1077)의 문집이나 어록 중 일상에서의 학문과 심성 수련에 필요한 내용을 선집한 것이다. 주희는 수신하는 법은 『소학(小學)』에서 다루고 있고, 의리는 『근사록』에서 상세히 다루면서, 『사서(四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¹

이 책에는 모두 622조항이 수록되어 있다. 주희의 서문에 따르면, 6개의 강령 하에 14개의 강목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각 권에 하나의 강목을 배치하여 14권으로 되어 있다.² 구단(求端)이라는 강령 하에 권1 도체(道體)가 있고, 용력(用力) 하에 권2 위학(爲學), 권3 치지(致知), 권4 존양(存養), 치기(處己) 하에 권5 극기(克己), 권6 가도(家道), 권7 출처(出處), 치인(治人) 하에 권8 치체(治體), 권9 치법(治法), 권10 정사(政事), 권11 교학(敎學), 권12 경계(警戒), 변이단(辨異端) 하에 권13 변이단, 관성현(觀聖賢) 하에 권14 관성현으로 되어 있다.³ 이를 통해 주희는 성리학적 도덕론을 이론화하였고, 수양을 통한 유학적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도통(道統)을 나타냄으로써 이단(異

1 朱熹, 『朱子語類』 卷105. “近思錄. 修身大法, 小學備矣, 義理精微, 近思錄詳之, [...] 四子六經之階梯, 近思錄四子之階梯.”

2 朱熹, 『近思錄集解』, 「序」. “因共撰取其關於大體而切於日用者, 以爲此編. 總六百二十二條, 分十四卷. 蓋凡學者所以求端首卷論道體, 用力二卷總論爲學大要, 三卷論致知, 四卷論存養, 處己五卷論克己, 六卷論家道, 七卷論出處義利, 治人八卷論治體, 九卷論治法, 十卷論政事, 十一卷論教學, 十二卷論警戒, 與夫所以辨異端十三卷, 觀聖賢十四卷之大略, 皆粗見其梗概.”

3 여기에서 제시한 편명은 이후 섭체에 의해 주해되면서 변경된 약칭으로, 원래의 편명은 주1과 같이 주희의 서문에 제시되어 있다.

端)을 경계하도록 하였다.⁴

이 책은 송대 학자들의 언설을 주제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으로는 처음이다.⁵ 특히, 주희의 치밀한 학습 단계가 반영된 구성은 이후 명대 『성리대전(性理大全)』 편찬에도 영향을 주었다.⁶

그러나 『근사록』의 내용은 문집 혹은 어록의 일부 내용을 가져온 것이므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초학자들이 읽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었다. 『근사록집해』는 주희의 재전제자인 섭채가 주희와 그의 스승인 진순(陳淳, 1159-1223)을 주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해설을 모아 본문의 이해를 돋고자 한 책으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읽힌 『근사록』 주석서이다.

『근사록집해』의 간행은 완성된 송대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전본 중 가장 이른 것은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명초 원판(元版) 복각본이다.⁷ 한반도에 처음 전래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1370년(공민왕 19) 이인민(李仁敏, 1340-?)이 간행한 원판 복각본이 현전하고 있어⁸, 적어도 고려 후기에는 수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이 책의 최초 전래 시점은 분명하나, 널리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는 17세기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세까지 오산(五山) 선승(禪僧)을 중심으로 『역경(易經)』과 『사서』의 신주석서를 위주로 송학(宋學)이 수용되기는 했으나⁹, 이는 유불일치론(儒佛

4 송희준, 「『近思錄』의 도입과 이해」, 『한국학논집』 25(1998), 135쪽.

5 『四庫全書總目』 卷93 「子部-儒家類」. “性理大全書. 考自漢以來, 弟子錄其師說者, 始於鄭記鄭志, 是即後世之語錄, 其衷諸儒之言以成一書者, 則古無是例, 近思錄其權輿矣.”

6 김윤제, 「『性理群書句解』의 내용과 편찬 경위」, 『奎章閣』 23(2000), 9-10쪽.

7 이 판본의 서지 사항은 阿部隆一, 『增訂中國訪書志』(東京: 汲古書院, 1983), 720쪽에 자세하다.

8 고려본에 대해서는 옥영정, 「동빈문고 中國翻刻本과 그 가치」, 『民族文化論叢』 51(2012)에 상세하다.

9 久須本文雄, 『日本中世禪林の儒學』(東經: 山喜房, 1992), 7쪽.

一致論) 입장에서 선학(禪學)의 사변적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읽혔을 뿐¹⁰, 이기론(理氣論) 등 성리학의 핵심이 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窓, 1561–1619)를 시작으로 일본의 학자들은 조선에서 유입된 서적 등을 통해 성리학을 접하게 된다. 이후 하야시 라잔(林羅山, 1582–1657), 야마자키 안사이(山崎闇齋, 1618–1682) 등에 의해 활발히 수용되나, 당시 일본의 학문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이 공존하는 박학적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조선 및 중국과 같이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선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시기에 전해진 조선본은 성리학뿐만 아니라 병학·의학·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활자판(古活字版)의 출현과 상업 출판의 발전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가사키(長崎)로 들어오는 복건 지역의 상선(商船)을 통해 중국 본이 유입되고 있었다. 이처럼 새롭게 유입된 서적은 개인에게 소장되기도 하였으나, 상업 출판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되기도 하였다. 『근사록집해』 역시 현전본을 통해 이러한 시대적 경향에 의해 유통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에서 간본을 통해 각국의 『근사록집해』 수용 양상에 대해 다룬 연구는 적지 않다. 그러나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 대해서는 매우 미진하다. 그나마 이 책을 중시했던 야마자키 안사이의 훈점본(訓點本)을 통해 그의 해석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나, 일부 관련 판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¹¹

10 芳賀幸四郎, 『中世禪林の學問および文學に関する研究』(東京: 日本學術振興會刊, 1956), 58쪽.

11 近藤啓吾, 『山崎闇齋の研究』(伊勢: 神道史學會, 1986).

이에 본고에서는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고,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조선본이 가장 활발히 유통된 일본의 17세기에 초점을 맞춰, 『근사록집해』를 통한 조선본 수용 양상에 대해 서적교류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17세기 일본의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전래와 수용

중세까지 일본에서 『근사록집해』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 및 현전본은 전하고 있지 않다. 일본에 유입되었어도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이므로 수용은 근세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근사록집해』 유입과 수용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부족하므로, 이 장에서는 당시 일본에서 수용되고 있던 현전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전본에 남겨진 장서인과 기록, 판본 계통을 통해 각 수용 주체의 사회적 위치와 소장 경위, 일본에 유입된 판본의 성격과 수용 방식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다만 당시 일본의 출판문화사 전개 과정에 따른 수용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 책이 처음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1648년(게이안(慶安) 1)을 기점으로 17세기 전반과 17세기 중·후반으로 나누어 다루어보고자 한다.

1. 17세기 전반

1) 오와리번(尾張藩) 스루가어양본(駿河御譲本)(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에도(江戸) 막부(幕府)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2-1616)는

임진왜란 약탈본을 다수 소장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소장한 조선본의 대부분은 1600년(계이초(慶長) 5) 세키가하라(関が原) 전투에서 승리한 후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장수들이 대다수 속해 있던 반대측 서군(西軍)에게서 몰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605년 쇼군(將軍)에서 물러나 고향인 슨푸(駿府)로 내려가면서 에도성에 보관하고 있던 서적 일부를 토대로 스루가문 고(駿河文庫)를 세웠다. 1617년(겐나(元和) 3) 사망 후 서고를 관리하던 하야시 라잔이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徳川秀忠, 1605-1623)의 명으로 나머지 세 아들에게 분배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로 양도 받은 것은 오와리번의 도쿠가와 요시나오(徳川義直, 1601-1650)였다. 이때의 서적은 현재 나고야시호사문고(名古屋市蓬左文庫)에 대부분 전하나, 일부 서적은 매각되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등에 분산되어 있다.

1617년 1월 7일에 작성된 양도 당시의 서적 목록인 『슨부오와케모노노고 쇼세키(駿府御分物之御書籍)』에 이 책 4책이 확인된다. 이 책은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519년 봉성정사(鳳城精舍) 간행 조선본 『근사록 집해』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쿠가와 요시나오 한 대에만 사용한 장서인인 「御/本」이 날인되어 있다.¹²

2) 17세기 초 추정 하야시 라잔 수교(手校) 필사본(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전 3책으로 완질인 이 책은 책말에 「嘉靖丙寅郡守安曠/刊莊中和清涼書院」¹³ 이라는 목기가 원본 그대로 옮겨져 있어, 1566년(명종 21) 중화(中和)의

12 이 판본의 서지적 검토는 III장 1절에서 다루었다.

13 본고에서는 동일 서명의 서적을 다수 다루기 때문에 각 서적의 자세한 서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판본 간의 차이와 계통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돋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서지 사항뿐만 아니라 원문이 제시된 상태를 최대한 원본 그대로 나타내기 위해 기호를 사용하고자 한다. '〈 〉'는 小字, '《 》'는 細字, '/'은 改行, '⟨⟩'은 첫 글자와 개행 후 첫 글자의 높이가 동일함을 나타낸다.

청량서원(淸涼書院)에서 간행한 갑인자본 계통의 목판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사촬요(故事撮要)』 1568년 을해자본부터 중화조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필사본에는 제4책 책말에 명나라 오면학(吳勉學)¹⁴이 교정한 『분류경진근사록집해(分類經進近思錄集解)』의 권14가 별지에 필사된 것이 삽입되어 있다. 오면학은 명말 장서가이자 각서가로, 휘주(徽州)에서 그의 호를 딴 서사(書肆)인 사고재(師古齋)를 운영하였다. 그는 섭채의 『근사록집해』를 주제에 따라 다시 분류한 『분류경진근사록집해』를 교정 및 간행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필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여러 인물이 나눠서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책의 책말에는 하야시 라잔의 묵서가 있는데, 제1책에 「羅浮子道春一校」, 제2책에 「夕顏卷道春一校之」, 제3책에 「近思錄全部一校滴露之/[]道春」이라 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하야시 라잔이 이 책을 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황색표지에 오침안(五針眼)이며, 전체 크기는 32.8×21.3cm이다. 표지의 좌측 상단에는 묵서로 「近思錄集解」와 같이 서명이 적혀 있고, 우측 상단에 수록 목차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昌平坂/學問所」가 날인되어 있어, 이 책이 이후에도 후기 판학인 쇼헤이자카학문소(昌平坂學問所)의 소장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책수에 1248년(순우(淳祐) 8)에 작성된 섭채의 서문인 「近思錄集解序」가 실려 있고, 이어서 1252년(순우(淳祐) 12)에 작성된 「進近思錄表」와 이 책의

14 장서가이자 刻書家로, 자는 肖愚 호는 歸古, 安徽省 歙縣 출신이다. 생몰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가 출판한 책들의 간행 시기가 대부분 萬曆 연간이다. 그가 출판한 책에는 『분류경진근사록집해』 외에도 『性理大全』·『楚辭』·『資治通鑑』·『醫學六種』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300여 종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대가 된 문헌의 제목과 인물들의 설명이 있는 「近思錄」이라는 제목의 부분과 1175년(순희(淳熙) 2) 주희의 서문과 1176년 여조겸의 서문이 있다. 그 이후에는 본문이 「近思錄卷之一/(低4格)凡五十一條/(低4格)(有小字双行注)/濂溪先生曰無極而太極(有注)」와 같이 시작한다.

판식은 사주단변(四周單邊), 무계(無界), 반엽 23.9×16.4cm, 9행 18자로, 판심이 없다. 권미제는 「近思錄卷之幾」이다. 본문은 매 장마다 개행(改行)되어 있고, 본문에 간간이 인명과 나라명에 주선(朱線)으로 표시되어 있고, 주점(朱點)이 있다.

인기(印記)는 매 책수에 「林氏/藏書」, 「淺草文庫(楷書)」, 「日本/政府/圖書」가 있는데, 제1책에만 「江雲渭樹」이 있다. 매 책 책말에는 앞서 날인된 바와 동일한 「日本/政府/圖書」와 「昌平坂/學問所」가 있고, 제3책 하야시 라잔의 묵서에는 「羅/山」이 날인되어 있다.

청량서원본을 간행한 안상(安瑞)은 중화군수로 있으면서 이 책 외에도 자신의 형인 안희(安璋, 1491-1503)가 초편(抄編)한 『한서전초(漢書傳抄)』를 간행하였다. 이 외에 16세기까지 청량서원에서 간행된 서적으로 1568년에 간행된 『고사통략(古史通略)』이 있다.¹⁵ 이를 서적 또한 각각 『고사촬요』 1568년(선조 1) 을해자본 및 1585년 목판본의 중화조에서 확인된다.

청량서원본의 현전본 중 궁내청 서릉부(宮內廳 書陵部) 소장본(500-61)은 4책 완질이며, 이극인(李克仁, 1525-1595)의 구장본(舊藏本)이다. 황벽색연화문표지(黃壁色蓮花紋表紙)의 좌측 상단에 「近思錄(幾)」이라 적혀 있다. 제1책에는 제첨 흔적이 있고, 서뇌(書腦)에 「共四」라 적혀 있다. 전체 크기는 37.0×21.8cm이다. 「近思錄集解序」, 「近思錄」, 「進近思錄表」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권수의 내용은 봉성정사본과 동일하다.

15 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지식산업사, 2003), 102쪽.



사진1-하야시 라잔 소장 필사본 『근사록집해』(일본 국립공문서관)

판식은 사주단변, 유계, 반엽 23.5×16.8cm, 9행 18자,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이고, 권미제도 봉성정사본과 동일하다. 제4책 말에 쌍면의 목기로 「嘉靖丙寅郡守安端/刊莊中和清涼書院」가 있다. 각수명은 「성」·「심」·「▽」 등이 보인다.

장서인은 매 책수에 「醉琴堂」, 「李克仁德元」, 「完山後人」, 「宮內省/圖書印」이 있다. 각 권 장수 역시 봉성정사본과 동일하다.

3) 간에이(寛永) 연간(1624-1645) 간행 추정¹⁶ 고활자판

고활자판에는 앞서 살펴본 필사본과는 달리, 조선본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다만 본문의 체재와 내용, 무엇보다도 행자수가 갑인자본 계통본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 대조를 통해 조선본 『북계선생성리자의(北溪先生性理字義)』와 일본 고활자판 및 하야시 라잔 소장 필사본 등의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에 따르면, 조선본과 가장

16 川瀨一馬, 『古活字版之研究』(東京: 日本古書籍商協, 1967), 384쪽.



사진2- 일본 고활자판 『근사록집해』(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가까운 것은 필사본이며, 고활자판은 조선본보다는 필사본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고 하였다.¹⁷ 『근사록집해』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대조해보니 간본 간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필사본이 더 앞서고, 하야시 라잔과 마찬가지로 세이카의 문인인 스미노쿠라 소안(角倉素庵, 1571-1632) 및 나바 갓쇼(那波活所, 1595-1648) 등 주변 인물들이 고활자판을 간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하야시 라잔 소장 필사본 역시 참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고활자판은 책수에 「進近思錄表」가 있다. 이어서 섭채의 「近思錄集解序」, 「集解目錄」이 있고, 「近思錄」과 주희 및 여조겸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과 형식은 필사본과 동일하다.

권수는 「近思錄卷之一/(低4格)凡五十一條/(低4格)(有注)/濂溪先生曰無極而太極(有注)」와 같이 시작한다. 본문의 형식은 필사본과 동일하며, 훈점이 없다.

17 大島晃, 「朝鮮版晉州嘉靖刊本系統『北溪先生性理字義』五種對校略考」, 『漢文學解釋與研究』 8(2005), 40쪽.

판식은 사주쌍변, 무계, 반엽 22.6×16.9cm, 9행 18자, 흑구(黑口), 상하내 향3엽화문어미(上下內向3葉花紋魚尾), 판심제는 「近思錄」, 권미제는 「近思錄 卷之幾」이다. 각 권의 장차는 필사본과 동일하다.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및 국립공문서관 소장본의 상란에는 본문의 오자 가 다수 교정되어 있다. 또한 「進近思錄表」의 말미에 「〈采臣〉」은 상하가 바뀌어 있다. 이는 저본의 문제가 아닌 조판 과정에서의 오식(誤植)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활자판의 간행뿐만 아니라 도쿠가와가(德川家)와 하야시 라잔은 조선본 유입 초기 조선본을 소장 및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이 시기 일본의 조선본 수용 양상 및 일본의 출판문화사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조선본 『근사록집해』가 초기에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도쿠가와가 및 하야시 라잔과 같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필사하여 본 것은 물론, 고활자판 역시 간행되었다고 해도 공적으로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된 것이 아니었다. 칙판(勅版)은 물론 도쿠가와 이에야스 주도 하에 간행된 후시미판(伏見版) 및 스루가판(駿河版) 중 간행 후 같은 주체에 의해 복각되어 외부에 배포된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상징적이거나 내부 수요만을 위한 것이므로 유통에 제한이 있었다. 개인 간본의 경우, 스미노쿠라 소안이 조선본 『사기(史記)』를 교정 및 간행하는데 하야시 라잔을 비롯한 세이카의 문인들이 관여하고 있는데¹⁸, 이는 교유 관계 중심의 개인 간본의 유통 범위를 잘 보여준다.

18 高木浩明, 「古活字本の世界: 近世初期の書籍」, 『書籍の宇宙』(東京: 平凡社, 2015.5), 59-90쪽; 高木浩明, 「角倉素庵と學問的環境」, 『形成される教養—十七世紀に本の知』(東京: 勉誠出版, 2015.11), 243-268쪽.

2. 17세기 중반 이^후

현재까지 간에이 연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근사록집해』는 12건으로, 모두 서사에서 간행되었다. 해당 판본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 제시된 간본은 기본적으로 간행 시기 순으로 나열하되, 본문이나 서지 사항을 통해 간본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서적끼리 배치하였다.¹⁹

표1-17세기 일본 서사 간행 『근사록집해』

번호	편저자	간행 시기	간행 서사	참고사항	현 소장처
1	朱熹·呂祖謙 撰 葉菜(宋)集解	1648刊	風月宗知		東京都立中央圖書館, 神宮文庫
2		又1659修	吉野屋權兵衛		인하대, 大阪府立中 之島圖書館 등
3		同1672刊	吉野屋權兵衛		大阪大
4		1668刊	吉野屋權兵衛	조선 봉성정사본 복각본	東京大 總圖
5		1668刊	石渠堂		大阪大
6		又1668修	石渠堂		東京大 總圖
7		又1673後印	吉野屋權兵衛	[山崎闇齋 訓點本]	慶應大 斯道文庫 등
8		同1673刊	吉野屋權兵衛	1673년 後印本의 복각본	
9		同1678刊	吉野屋權兵衛	鼈頭本(宇都宮由的 주석 및 훈점)	東京都立中央圖書館 등
10		同1688刊	八幡屋重兵衛(江戸)	1668년 石渠堂 無點本의 복각본	關西大 등
11		又1688修	利倉屋喜兵威(江戸)		일본 국립공문서관 등
12		1694刊	芳野屋權兵衛		慶應大 斯道文庫 등

19 17세기는 상업 출판이 출현하여 성장하던 시기였으므로, 책판의 양도 및 판권 침해 등으로 版元의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간행 시기에 대해 이를 고려한 일본식 표기 방법을 따랐다. '又'는 바로 위에 제시한 판본과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고, '同'은 텍스트는 동일하여 계통적으로는 관련성이 있으나, 異

1) 1648년 후계쓰 소치(風月宗知) 간행

본문의 내용과 체제는 조선본 혹은 고활자판과 동일하나, 행자수를 비롯한 판식이 다르고 훈점이 달려 있으며 본문을 8군데 교정하여 두주(頭註)로 다른 판본과의 차이를 밝혔다. 두주의 내용이 「●或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두 건 이상의 서적이 참고된 것으로 생각된다.²⁰

이 판본은 책수에 「近思錄集解序」가 있고, 이어서 「進近思錄表」, 「近思錄」, 「集解目錄」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고, 모두 7행 15자이다.

권수는 「近思錄卷之一/((低2格)新安朱熹(低1格)/(低2格)東萊呂祖謙)編集(低2格)建安葉采集解/(低2格)道體類凡五十一條(有注)/(低2格)(有注)/濂溪先生曰無極而太極(有注)」로 시작한다. 훈점이 있고, 본문 8곳에 대한 교감주가 상란에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 무계, 8행 17자, 흑구,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고, 판심제 및 권미제는 「近思錄」이다.

주희와 여조겸의 발문은 권14가 끝난 후에 제1-3장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목차는 간본에 따라 순서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제14책 책말에 목기(木記)인 「慶安元曆仲春/風月宗知刊行」가 있다.

2) 1659년(만지(萬治) 2) 요시노야 콘베에(吉野屋權兵衛) 후수(後修)

제1책 앞에 편제면이 「翠娛閣訂定(陰刻 模刻 印記 1顆)/近思錄(以上3字 大字)/<聖主崇文正理學大明之日茲錄及性理則濂/(低2格)洛關闡淵源近/(低1格)宗

판임을 의미한다. 또한 동판이라도 재간된 경우는 '後印', 일부 수정된 경우는 '修'라고 표기하였다.

20 두주의 내용을 토대로 3종의 조선본(갑인자본·청량서원본·봉성정사본 및 고활자판)의 본문을 대조해본 결과, 모든 간본이 부분적으로 주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어 참고 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참고된 간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師亦首崇之本坊特求善本精粹以公四/(低2格)方具眠宜共珍焉(低3格聚古堂梓行)」

과 같이 되어 있다.

또한 간기가 권14의 권말 여백에 「萬治二<己/亥>九月吉旦/柳馬場通二條下町/吉野屋權兵衛板」과 같이 있다. 간기의 규격만큼 광곽 아래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데, 이는 간기만 다시 새겨 원래의 목판에 끼워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새로운 판원(版元)인 요시노야 곤베에가 다시 간행하면서 이와 같이 고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매 권말에 소자(小字)로 「終」을 추가하였다는 점도 후게쓰 소치 간본(이하 후게쓰본)과 다르다.

3) 1672년(간분(寛文) 12) 요시노야 곤베에 간행

이 판본은 요시노야 곤베에가 이전에 간행한 1659년본과 원문은 동일하나, 판식과 훈점이 다른 이본(異本)이다. 그러나 편제면의 내용은 앞서 제2기에서 살펴본 1659년 요시노야 곤베에본과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면 외곽선의 모양이 대나무와 같은 형태이고 필획이 다르다.

권수 이전의 목차는 「進近思錄表」, 「近思錄集解序」, 주희 및 여조겸의 서문, 「近思錄」 및 「集解目錄」으로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자수를 비롯한 판식이 다르다. 다만 제목이나 관직명 및 이름 등을 표기할 때의 형식은 동일하다. 또한 판심제인 「近思錄」이 상상비(上象鼻)에 있다.

권수는 「近思錄卷之一/(低2格)新安朱熹/(低1格)東萊呂祖謙·編集(低2格)建安葉采集解/(低2格)道體類凡五十一條(有注)/(低2格)(有注)/濂溪先生曰無極而太極(有注)」로 시작한다. 본문의 형식은 앞서 살펴본 판본과 동일하나, 훈점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 무계, 9행 18자, 화구(花口), 상중하내향흑어미(上中下內向黑魚尾)이고, 권미제는 「近思錄卷之幾(終)」이다.

간기는 권14의 권말에 「寛文十二<壬/子>曆六月吉旦/柳馬場通二條下ル」



사진3-1659년 요시노야 곤베에 후인본(인하대)

町)/吉野屋權兵衛刊行」이라 되어 있다.

4) 1668년(간분 8) 요시노야 곤베에 간행

책수에 「進近思錄表」가 있고 이어서 「近思錄集解序」, 다음 행에 이어서 「集解目錄」, 「近思錄」, 주희와 여조겸의 서문이 있다.



사진4-1668년 吉野屋權兵衛
간행(일본 국립공문서관)

권수는 「近思錄卷之一(低 4 格)凡五十一條/(低 4 格)(有注)/濂溪先生曰無極而太極(有注)」로 시작 한다.

판식은 사주단변, 무계, 8행16자, 화구, 상하내향2엽화문어미이다. 권미제는 「近思錄卷之幾」이다.

제4책 책말에는 원간기인 「正德己卯夏/鳳城
精舍刊」이 있고, 그 좌측에 「于時寬文八年歲次
戊申五月吉日/[]吉野屋權兵衛板行」이라는 일
본 측 간기가 있다.

5) 1668년 세키쿄도(石渠堂) 간행

이 판본의 앞면지에는 편제면이 「朱紫陽/呂東萊兩先生纂輯(模刻 印記 1
顆)/近思錄(大字)/葉采集解[]稽古齋藏版」와 같이 있다.

책수에 수록된 「近思錄集解序」와 「進近思錄表」는 행자수가 7행 15자로
후게쓰본과 동일하다. 이어서 주희와 여조겸의 서문, 그리고 「近思錄」 및
「集解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주희의 서문부터는 본문과 동일한 9행 18자로,
이전 간본에 비해 행자수가 늘어나 있다.

권수는 「近思錄卷之一/((低1格)新安朱熹(低1格)/(低1格)東萊呂祖謙·編集(低
3格)(제2행과 제3행에 걸쳐)建安(低1格)葉采集解/(第3行)新安吳勉學校閱/((低1
格)道體類凡五十一條(有注)」와 같이 시작한다. 권수제의 내용과 형식은 후게
쓰본과 동일하나, 지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텍스트 및 형식 역시 동일하나, 훈점이 없다. 광곽 위에 교감주가 있는
것 역시 동일하나, 그 외곽선의 형태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판식은 사주쌍변, 무계, 9행 18자, 상하향후어미이고, 권미제는 「近思錄卷
之幾〈終〉」이다.

간기는 권14의 권말에 용운문(龍雲紋)이 있는 비석 모양의 패기(牌記)가
있고, 그 안에 「〈徒維²¹涇灘寬文八年〉/石渠堂重校梓/〈姑洗月焉逢敦牂日〉」이라
새겨져 있다. 그리고 각 권의 장수는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다.

6) 1668년 세키쿄도 후수(後修)

이 판본은 기존의 세키쿄도본에 훈점을 추가하고 「進近思錄表」와 「近思錄
集解序」의 순서를 바꾸어 각각의 장차를 제1-3장, 제4-5장으로 수정하였다.

21 「屠維」의 誤記인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는 원문 그대로 표시하였다.

7) 1673년(간분 13) 요시노야 곤베에 후인

야마자키 안사이의 훈점본으로 추정된다.²² 간기 중 연도 부분에 「八」을 「癸/低1格丑」으로 수정하였고, 그 좌측 여백에 「柳馬通二条下町/吉野屋權兵衛刊行」을 추가하였다.

8) 1673년 요시노야 곤베에 간행

1673년에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간행된 판본에는 앞서 살펴본 야마자키 안사이 훈점본으로 추정되는 것 외에도 1종이 더 있는데, 두 판본은 동일하게 보이나 훈점과 글자의 필획 등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모본과 복각본의 관계로 생각된다.

9) 1678년(엔포(延寶) 6) 요시노야 곤베에 간행

이 판본은 오두본(鼈頭本)이다. 본문은 1668년 세키쿄도본과 동일하나, 훈점은 이 책을 주해한 우쓰노미야 유테키(宇都宮由的, 1633-1707)에 의해 새롭게 매겨졌다.

판식은 사주쌍변, 무계, 8행 15자, 하상비(下象鼻)에 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이고, 권미제는 「近思錄卷之幾(終)」이다.

권14 뒤에는 1677년(엔포 5)에 작성된 우쓰노미야 유테키의 발문이 있다. 이어서 간기는 「延寶六年戊午二月吉辰/〈柳馬場通押小路上町〉/吉野屋權兵衛刊行」이다.

10) 1688년(조쿄(貞享) 5) 에도 하치만야 주베에(八幡屋重兵衛) 간행

「近思錄集解序」와 「進近思錄表」의 장차(張次)가 1668년 세키쿄도본의 초간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를 저본으로 한 복각본인 것으로 보인다.

22 近藤啓吾, 『山崎闇齋の研究』(伊勢: 神道史學會, 1986), 111쪽.

다만 훈점이 전혀 다르며, 편제면이 없고, 권14의 권미제 다음 행에 소자로 새겨진 1687년(조쿄 4) 앤스 데이칸(安貞漢)의 발문과 모각 인기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책말 폐기의 형태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그 안의 내용은 「徒維渕灘貞享五(戊/辰)年/石渠堂重校梓/《姑洗月焉逢敦牂日》」으로 간행된 해에 해당되는 연호와 간지로 바꿨다. 그러나 고갑자 부분은 그대로 1668년에 해당되는 「徒維渕灘」으로 두었다. 또한 간기의 좌측 여백에 「江戸日本橋毒物町[]八幡屋重兵衛改版」이라고 되어 있다.

11) 1688년 에도 도시쿠라야 기베에(利倉屋喜兵衛) 후수

이 판본은 하치만야 주베에본과 동일하나, 제1책 제7장의 제1행 16번째의 글자가 「次」로 수정되었다. 또한 책말 폐기의 좌측 여백에 있던 원래의 간기를 일부 수정하여 「江戸日本橋南 利倉屋喜兵衛改版」이라 되어 있다.

12) 1694년(겐로쿠(元祿) 7) 요시노야 곤베에(芳野屋權兵衛) 간행

서사명의 '芳'은 일본어 훈음으로 '吉'과 발음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본은 도시쿠라야 기베에본과 원문은 동일하다. 그러나 권수에 오면 학을 포기하지 않았고, 훈점과 행자수를 비롯한 판식이 다르다. 또한 주희와 여조겸의 서문 중 인물명을 이전 판본과는 달리, 세주로 표기했다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간본의 계통을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판본 상의 교열자 오면학의 명시 여부와 책말의 폐기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1648년 후계쓰본과 이를 1659년 바뀐 판원인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재간한 판본, 그리고 1672년 동일 서사에서 새롭게 판각하여 간행한 판본은 매 권수에 교정자 오면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1668년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간행한 새로운 판본 역시 오면학이 보이지 않으나, 글자 모양과 책말에 원간기 「正德己卯夏/鳳城精舍刊」를 통해 조선본을 그대로 복각한 것으로, 비록 같은 서사에서 간행된 것이라도 후게쓰본 계통과는 연관성이 없다.

오면학을 내세운 판본은 1668년 세키쿄도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이 판본의 계통본은 모두 권1의 권수에 「新安吳勉學校開」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3장에서 다루고자 하나, 이 판본과 그 계통본에는 비석 모양의 패기가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본문의 체제가 오면학의 『분류경진근사록집해』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1648년 후게쓰본과 동일하다.

또한 주요 간본인 1648년 후게쓰본과 1668년 요시노야 곤베에본 및



사진5-1659년본·1668년 세키쿄도본과 명판본²³ 비교

23 사진의 판본은 오면학본을 楊璧鄉이라는 서사에서 복각한 것이나, 행자수 및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참고를 위해 제시한다.

표2-주요 판본 간 수록 목차 비교(판본에 따라 목차의 순서에 차이 있음)

간행 시기	간행 서사	수록 목차
1648刊	風月宗知	「近思錄集解序」-「進近思錄表」-「近思錄」-「集解目錄」-본문- 주희 및 여조겸 서문
1668刊	吉野屋權兵衛	「進近思錄表」-「近思錄集解序」-「集解目錄」-「近思錄」-주희 및 여조겸 서문 - 본문
1668刊	石渠堂	「進近思錄表」-「近思錄集解序」-주희 및 여조겸 서문-「近思錄」-「集解目錄」-본문
萬曆 연간 (1573-1619)	師古齋(吳勉學)	「進近思錄表」-「近思錄群書姓氏」-주희 및 여조겸 서문-「近思錄集解」-「分類經進近思錄集解綱目」-본문

세키쿄도본의 수록 목차와 본문의 체제를 앞서 제시한 사진과 표2를 통해
화각본의 수록 목차와 본문의 체제는 계통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오면학본 혹은 그 계통본 역시 본문
교정에 참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III. 상업 출판을 통한 조선본 수용 양상

1. 일본 수용 조선본과 그 방식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본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도 있으나,
상업 출판된 판본의 대부분은 본문에 교정을 가하거나 다른 판본의 양식이
더해져 있다.

1) 저본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17세기 일본에서 상업 출판을 통해 수용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조선본은 1519년 봉성정사본이다. 도쿠가와가에서는 이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고, 1668년 요시노야 곤베에본은 복각하여 간기만 추가하였다.

16세기까지 조선에서 간행된 『근사록집해』의 현전본은 활자본 3종, 목판본 6종이 있다.²⁴ 이를 간본은 크게 저본에 따라 초주갑인자본의 초간본 및 중간본으로 그 계통을 나눌 수 있다. 초간본은 1435년(세종 17) 4월 8일에 허조(許稠)의 건의로 간행되었는데²⁵, 김빈(金鎭, ?-1455)의 주자발 다음에 「正統元年六月日 印出」이라는 내용으로 이듬 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간본은 권발(權撥)의 내사본을 통해 1519년(중종 14)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종실록(中宗實錄)』의 1518년 7월 26일자 기록에 김희수(金希壽)가 이 책의 간행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기도 하다.²⁶ 중간본은 같은 활자로 간행되기는 했으나, 어미의 형태가 초간본은 상하하향혹어미인 것과 달리 상하내향3엽화문어미로 바뀌었고, 활자가 전반적으로 넓어 있으며 보자(補字)가 섞여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권미제의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²⁷ 따라서 봉성정사본은 초간본 계통임을 알 수 있는데,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하야시 라잔 소장 필사본의 저본인 청량서원본도 동일하다.

봉성정사본은 1518년 2월 29일자 실록 내용을 통해 간행 경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이 구례현감을 제수 받고 배사(拜辭)할 때 중종이 학교를 부흥시키라고 하자 『근사록』을 구하기 어려우니 이를 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고, 이에 중종은 허락하였다.²⁸ 현재 봉성정사

24 우정훈·송일기, 「葉採의 『近思錄』 集解本 板本考」, 『書誌學報』 36(2010), 235쪽.

25 『世宗實錄』 17년 4월 8일 乙卯. “又啓曰, 朱文公近思錄, 與四書小學相爲表裏, 願以大字模印, 以備睿覽, 且頒臣僚. 上曰, 予將從之.”

26 『中宗實錄』 13년 7월 26일 癸亥. “且近思錄亦儒者之所當討論, 而閭閻之門甚罕, 儒者未得見矣. 須依頒布小學之例, 命印可也.” 上曰, 所言是也. 可印頒中外.”

27 우정훈·송일기(2010), 앞의 논문, 238쪽.

28 『中宗實錄』 13년 2월 29일 戊戌. “求禮縣監安處順拜辭, 上引見, 教以興校學. [...] 處順曰, 近思錄閭閻罕得見之. 古人以此書, 爲窮鄉晚進, 無明師良友者, 得是篇而讀之, 則可知入

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봉성이 구례의 또 다른 지명이라는 점이 위의 실록 기록과 부합되고 있다.²⁹ 또한 『고사촬요』 1568년 을해자본 부터 구례조에 이 책이 확인된다.

현전본 중 오와리번 스루가어양본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WA36-4)은 4책 완질이다. 황벽색연화문표지의 좌측 상단에 목서로 「近思錄(幾)」이라 적혀 있고, 서뇌에 「共」(제1·4책) 혹은 「共四」(제2책)라 적혀 있다. 전체 크기는 32.7×21.7cm이다.

책수부터 「進近思錄表」, 「近思錄集解序」, 「集解目錄」, 「近思錄」와 주희 및 여조겸의 서문이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권수는 「近思錄卷之一(低4格)凡五十一條/(低4格)(有注)/濂溪先生曰無極而太極(有注)」로 시작한다. 본문의 형식은 화각본과 동일하다.

판식은 사주쌍면, 유계, 반엽 25.1×16.7cm, 9행 18자, 상하하향혹어미이



사진6-1519년 봉성정사 간행 조선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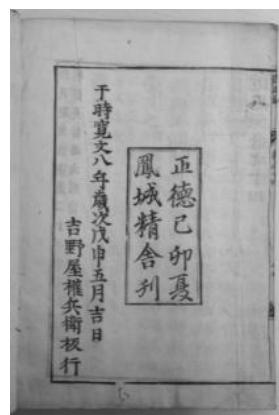


사진7-1668년 요시노야
곤베에 간본(일본 국립공문서관)

道之方云. 臣之所赴縣有刊材印紙. 若多印出則. 不徒其道之人. 得以觀覽. 亦可廣布矣. 上曰. 近思錄果先賢緊要之言. 持一本開刊. 印播他方. 其為有益. 豈不大哉?"

29 우정훈·송일기(2010), 앞의 논문, 242쪽.

고, 권미제는 「近思錄卷之幾」이다. 간기가 권14말에 쌍변의 목기로 「正德己卯夏/鳳城精舍刊」와 같이 있다. 그리고 각수명인 「勺村」·「八」·「谷」·「千」 등이 흑구와 어미에 새겨져 있다. 또한 제4책 뒷면지에 스루가어 양본임을 알리는 내용이 묵서된 별지가 붙어 있다.

장서인은 매 책수에 「御/本」, 「帝國/圖書/館藏」, 제1책에만 「拂」이 있다.

2) 중국본의 양식이 더해진 경우

화각본 『근사록집해』의 여러 판본 중 1668년 봉성정사본 복각본과 1648년 후게쓰본을 제외하면 중국본의 영향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표3-중국본의 영향이 보이는 판본과 그 내용

번호	해당 부분	해당 판본	적용 판본
1	편제면	1668년 石渠堂本, 1673년본 (吉野屋權兵衛 간행)	명 稽古齋本
		1659년본, 1672년본	1635년(崇禎 8)경 聚古堂本
		1694년본	명 博文軒本
2	牌記	石渠堂本 및 그 계통본	미상
3	교열자 명시	石渠堂本 및 계통본	萬曆 연간 오면학본 및 계통본

① 편제면

17세기 서사 간본에 있는 편제면은 크게 두 가지 형식이나, 명시된 서사명은 세 가지이다. 그러나 1659년본 등과 1694년본은 서사명만 다를 뿐, 전체 형식과 내용은 동일하다.

또한 편제면의 내용은 처음 간행된 서사끼리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간행된 1659년본과 1672년본은 취고당(聚古堂), 그리고 세키쿄도에서 간행된 것은 계고재(稽古齋)라 되어 있다. 세키쿄도본은 1673년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다시 간행하였다고 해도 편제면은 그대로 두었다.



사진8- 1659년본(인하대)·1668년 세키쿄도본(오사카대大阪大)



사진9- 1672년본(오사카대)·1694년본(도쿄대東京大)

정수룡(程水龍)의 연구에 의하면, 만력 연간에 간행된 오면학 교간본은 최소 4종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계고재본이다.³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키쿄도본의 텍스트는 『분류경진근사록집해』와 같아야

30 程水龍, 『近思錄版本與傳播研究』(上海: 上海古蹟出版社, 2008), 104쪽.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문은 후게쓰본과 같으므로, 모순된다.

취고당본은 명나라 육운룡(陸雲龍)과 정운화(丁允和)가 교정한 또 다른 계통의 판본으로, 여기에는 송정(崇禎) 연간(1628-1644)에 작성된 서문이 있다.³¹ 따라서 취고당의 편제면을 쓰고 있는 세키쿄도본 및 그 계통본은 원본의 내용과 상관없이 편제면만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 판본에 명시된 교열자가 오면학이라는 점도 저본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오면학 본의 복각본인 계고재 편제면을 쓴 판본 역시 저본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이유라 생각한다.



사진10-1668년 간행 세키쿄도본
(오사카대)

② 패기

1668년 세키쿄도본 아래, 그 계통본의 책말에는 비석 형태의 패기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각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명판본『근사록집해』 중에서도 이와 같은 패기를 보이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교열자 오면학 명시

명말 중국에서 가장 널리 읽혔던『근사록』은 오면학이 교열한『분류경진근사록집해』였다.³² 이 책은 송대 주여서(周如恕)가 각 권을 다시 주제어로 분류하고 주석을 보충한 것으로, 늦어도 1538년(가정(嘉靖) 17)에는 간행되었다. 그리

31 취고당본은 17세기 조선에도 유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金錫達(1657-1787)의 장서인이 날인된 서적이 중국의 한 경매업체에 출품된 바가 있다(pmgs.kongfz.com/detail/25_171351).

32 程水龍(2008), 앞의 책, 102쪽.

고 이를 오면학이 교정하여 만력 연간에 간행되었다.

다만 세키쿄도본의 여조겸 서문 중 「次」에 대한 오자인 「決」이 명판본 『분류경진근사록집해』에도 보인다. 이 오자는 1673년 요시노야 곤베에에서도 수정되지 않는다. 반면 후게쓰본과 1659년 후인본에는 맞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키쿄도에서 간각할 때 텍스트가 같은 권수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판본 『분류경진근사록집해』를 반영했고, 이러한 이유로 오면학의 이름을 넣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17세기 일본에서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서적 중에는 조선본뿐만 아니라, 최소 3종의 명판본과 함께 본문을 교정하거나, 일부 양식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수용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명판본은 모두 만력 연간 이후 간행된 것들이다. 따라서 조선을 경유해서 들어왔다고 하기보다, 17세기 이후 일본에 직수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3. 상업 출판을 통한 수용 양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68년에 간행된 조선 봉성정사본 복각본을 제외하면, 저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판본이 없다. 그러나 모든 판본의 본문은 일본에서 교정되었고, 상업 출판으로 간행되기 이전에 필사 및 고활자판으로 간행된 바가 있었다고 하지만, 본문은 기본적으로 조선본 계통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서사들의 간행 양상을 살펴본다면, 상업 출판으로 조선본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출판문화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표1에서 요시노야 곤베에는 17세기 동안 『근사록집해』의 책판을 6종 소유하고 있었던 서사로, 이 책을 가장 많이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17세기 서사 간행 성리학서 중 하나의 서사가 소유한 판권의 수로 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17세기 동안 교토에서 유통되는 이 책은 대부분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17세기 후반에는 세키쿄도본 계통의 책판이 에도에도 전해져 간행되었다. 이처럼 간행 횟수 및 지역으로 봤을 때 성리학서 중 소학서(小學書)를 제외하고 가장 널리 읽힌 책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야시 라잔도 이 책을 읽었지만, 아마자키 안사이는 주희의 저서인 이 책을 중요 성리학서 중 하나로 보고 훈점본을 내는 한편, 『근사록』 원문을 다시 해설하여 출판하였으며 저서 『문화필록(文會筆錄)』 권2에서 이 책을 주제로 다루기도 하였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근사록 집해』가 성리학 입문서로서 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널리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곳에서 초간된 것은 1668년 조선본 복각본 밖에 없다. 나머지 판본은 제Ⅱ장에서 검토한 서지적 사실에 의해, 기존의 책판을 인수하여 다시 간행하거나, 후인한 후 새롭게 훈점 혹은 오두를 달아서 다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상업 출판을 통해 경쟁적으로 간행되고, 하나의 서사가 독점해나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해당 간본의 간기와 당시 서사의 편간 서적목록을 참고하여 요시노야 곤베에의 출판 점유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서적이 계통적으로 조선본과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상업 출판을 통한 조선본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1) 1659년: 1648년 후게쓰본을 일부 수정하여 간행함

1659년에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후게쓰소치의 책판으로 간행하면서 명나라 취고당본의 편제면을 추가하였는데, 당시까지 이 곳 외에 간행된

판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2) 1668년 5월 간본: 조선 봉성정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신각(新刻)

이보다 2개월 앞선 3월에 세키쿄도에서 본문은 기존과 동일하나, 새로운 훈점을 달고, 권1 권수에 명나라 오면학이 교열하였음을 명시하였으며, 명나라 계고재본의 편제면을 붙이는 등 기존 판본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간행한 바가 있다.

3) 1672년 후인본: 미상의 책판을 흡수

서적목록 중에서 간행 시기가 명확한 것 중 가장 빠른 것은 1670년(간분 10) 『증보서적목록(增補書籍目錄)』이다. 이 목록과 1675년(연포 2) 『고금서적제림(古今書籍題林)』에는 『근사록』 항목에 무점본(無點本)·대자본(大字本)·세자본(細字本)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1670년대 중반까지는 세 종류의 판본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전본을 통해 미루어볼 때, 무점본은 1668년본, 세자본은 가장 글자가 가는 세키쿄도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자본은 1672년 요시노야 곤베에 후인본의 제첨에 「大字/校正」이라 되어 있어, 1675년에 유통된 판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1672년본의 초간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1670년 당시의 대자본은 둘 중 어느 판본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로 1672년본의 텍스트와 편제면의 내용은 1659년 본과 동일하나, 텍스트의 글자는 더 커졌고 편제면의 외곽선 형태가 바뀌었다.

4) 1673년 후인본: 세키쿄도본 흡수

세키쿄도본의 판권은 적어도 1673년에는 요시노야 곤베에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판원이 바뀐 구체적인 시기와 배경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원간기인 「徒維涇灘寬文八年」에서 「八」을 「癸/丑」이라고 수정했는데, 그대로 둔 「徒維涇灘」은 1668년(간분 8)인 무신년의 고갑자이다. 따라서 같은 책판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처음 간행한 오면학과 관련된 판본이다.

5) 1678년 오두본: 신각

두주의 공간을 대폭 늘려 해당 면의 텍스트에 대한 자세한 주석 및 해설을 달아 초학자들이 공부하기 쉽게 고안한 형태의 책이다. 간분 연간 (1661-1670) 이후부터 17세기 후반까지 유행하였는데, 이 판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6) 1694년 중본본(中本³³本): 신각

편제면의 내용이 세키쿄도본과 동일하나, 간행자 부분이 「博文軒」으로 바뀌어 있으며, 훈점이 다르다.

17세기 동안 이루어진 요시노야 곤베에의 『근사록집해』 간행 독점 과정은 수록 서적의 판원과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1694년(겐로쿠 7) 간행 『증익 서적목록대전(增益書籍目錄大全)』을 통해 보다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에는 『근사록』이라고 기재된 6건의 책이 있는데, 이 중 아마자키 암사이가 새롭게 원문을 해설한 『근사록』 1건을 제외하면 5건 모두 요시노야 곤베에가 판권을 가졌음이 확인된다.

표4와 같이 목록에 기재된 서적의 각 해당 판본을 추정해보면, 먼저 「大字」는 1672년본, 「中本」은 책의 크기가 기준보다 작아진 1694년본, 「無點」

³³ 일본에서 고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세로 19cm, 가로 13cm 정도의 크기이다. 1694년본의 현존본 크기를 보면, 慶應義塾大學附屬研究所斯道文庫本(125-ト116-4)는 19.9×13.8cm, 東京大學 總合圖書館本(B60-140)은 19.0×13.5cm이다.

표4-『증익서적목록대전』에 기재된 『근사록집해』

번호	기재 서명	책수	版元	가격 (단위:匁)	추정 판본
1	近思錄	4	吉野や	5	1673년 後印本
2	大字	8	吉野や	15	1672년본
3	中本	4	同	6	1694년본
4	無點	4	吉野や	15	1668년본
5	頭書	14	吉野や	6	1678년본

은 1668년본, 「頭書」는 모두본인 1678년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처음 기재된 「근사록」은 1673년본으로 생각된다.

이 목록은 이후 1709년(호에이)(寶永) 6) 마루야겐베에(丸屋源兵衛)에서 증수본(增修本)으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책의 판원은 그대로이다. 따라서 요시노야 곤베에는 적어도 18세기 초까지는 『근사록집해』에 대한 다양한 판본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판권을 차츰 흡수하면서 점유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17세기 일본의 서사에서 『근사록집해』를 경쟁적으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세 일본에서 성리학이 국가적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던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학 자체는 고대부터 귀족, 무사, 그리고 승려와 의사 등 여러 지식인층이 기본 교양으로서 꾸준히 수용되고 있었고, 근세 이후 1670년(간분 10)경 간행된 『화한서적목록(和漢書籍目錄)』을 비롯한 서사의 서적 목록에서 유학 서가 불서 다음으로 위치할 만큼 중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7세기 상업 출판된 유학서 중 소학서 다음으로 많이 간행되었다는 점은, 당시 일본에서의 성리학의 위상은 차치하더라도 이 책 자체는 널리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IV. 맷음말

『근사록집해』는 성리학 입문서로서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힌 성리학서 중 하나였다. 특히 일본은 16세기 말부터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였고, 17세기에는 상업 출판의 발전을 토대로 유입된 조선본과 중국본이 동시에 활발히 유통되었다. 『근사록집해』 역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다.

근세 일본에서 『근사록집해』의 수용은 임진왜란 때 약탈된 조선본을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조선본을 다수 소장하고 있던 도쿠가와가는 1519년 봉성정사본을 소장하고 있었고, 대표적인 학자로 조선본을 적극 수용했던 하야시 라잔은 1566년 청량서원본을 그대로 필사하여 읽었다. 그리고 17세기 초 일본 출판문화사의 특징으로 꼽는 고활자판으로도 간행되었는데, 이 역시 갑인자본 계통본과 행자수가 일치하고 있어 조선본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업 출판이 급증한 이후의 간행은 서사에서 이루어졌다. 현전본으로 확인되는 판본은 12건인데, 이는 당시 간행된 단일 성리학서 중 가장 많은 수이다. 또한 17세기 말까지 꾸준히 간행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12건의 서적은 간행 서사와 판본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본문은 기본적으로 조선본을 토대로 여러 서적을 대조하여 교정되어 있는 1648년 후게쓰본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요시노야 곤베에에서 점차 다른 서사의 책판을 인수하여 적어도 교토에서는 이 책의 간행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편제면과 패기, 중국인 교정자를 명시했다는 점을 통해 당시 일본에

유입된 중국본을 본문 교정되거나, 일부 양식이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더해져 간행되기도 하였다. 이때 이용된 중국본은 만력 연간 이후의 명말본으로 17세기 이후 일본에 직접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17세기 일본에서 수용된 『근사록집해』는 수용 계층과 방식을 불문하고, 임진왜란 당시 약탈된 조선본을 중심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세까지 일본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았던 『근사록집해』가 임진왜란 이후 조선본으로 널리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명대에도 지속적으로 이 책이 간행되면서 17세기 당시 원판본은 거의 유통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조선본이 원판본의 내용을 보전하고 있다는 점도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리학이 비록 근세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으나, 고대부터 유학은 귀족을 비롯하여 무사, 승려 등의 지식인층 등에 이르기까지 교양으로서 수용되고 있었다. 이 책은 성리학 기본서로서 비교적 널리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서사에서 경쟁적으로 간행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활자판의 저본과 하야시 라잔 필사본과의 관련성, 그리고 더 나아가 화각본 교정에 참고된 서적들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향후의 연구에서 이에 대해 밝혀진다면 17세기 일본에서의 조선본 『근사록집해』 수용 양상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世宗實錄』, 『中宗實錄』.

『攷事撮要』.

『四庫全書總目』.

『朱子語類』.

『駿府御分物之御書籍』.

『增益書籍目錄大全』.

2. 단행본

천혜봉,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지식산업사, 2003.

芳賀幸四郎, 『中世禪林の學問および文學に関する研究』. 東京: 日本學術振興會刊, 1956.

阿部隆一, 『增訂中國訪書志』. 東京: 汲古書院, 1983.

川瀨一馬, 『古活字版之研究』. 東京: 日本古書籍商協, 1967.

近藤啓吾, 『山崎闇齋の研究』. 伊勢: 神道史學會, 1986.

久須本文雄, 『日本中世禪林の儒學』. 東經: 山喜房, 1992.

程水龍, 『近思錄版本與傳播研究』. 上海: 上海古蹟出版社, 2008.

3. 논문

김윤재, 「『性理群書句解』의 내용과 편찬 경위」. 『奎章閣』 2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0, 1-29쪽.

송희준, 「『近思錄』의 도입과 이해」. 『한국학논집』 2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98, 131-145쪽.

옥영정, 「동빈문고 中國翻刻本과 그 가치」. 『民族文化論叢』 5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135-159쪽.

우정훈·송일기, 「葉採의 『近思錄』 集解本 板本考」. 『書誌學報』 36, 2010, 235-242쪽.

이유리, 『17세기 일본 간행 조선본 性理學書의 서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大島晃, 「朝鮮版晉州嘉靖刊本系統『北溪先生性理字義』五種對校略考」. 『漢文學解釋與研究』 8, 東京: 汲古書院, 2005, 40쪽.

高木浩明, 「古活字本の世界: 近世初期の書籍」, 『書籍の宇宙』. 東京: 平凡社, 2015, 59-90쪽.

高木浩明, 「角倉素庵と學問的環境」, 『形成される教養—十七世紀に本の知』, 東京: 勉誠出版, 2015, 243-268쪽.

국문초록

성리학 입문서로서 동아시아에서 널리 읽힌 성리학서 중 하나인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는 일본의 경우 17세기부터 널리 읽힌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약탈된 조선본 및 활자 인쇄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이 보급되는 한편, 상업 출판이 발전하게 되었다. 『근사록집해』의 전반적인 수용 양상 역시 이러한 당시 일본의 전반적인 흐름과 부합하여, 초기에는 개인에 의해 원본 소장·필사·고활자판 간행을 통해 수용하였다. 이때 수용된 조선본은 적어도 2종으로, 1519년 봉성정사본과 1566년 청량서원본이다.

한편, 상업 출판이 급증하는 17세기 전반 이후에는 상업 출판으로 간행되었다. 상업 출판으로 간행된 12건의 본문은 조선본을 토대로 기타 간본을 참고하여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간행 서사마다 명판본의 일부 양식을 본문과는 상관없이 차용한 경우도 보인다. 이를 통해 조선본뿐만 아니라 3종의 명판본이 함께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업 출판으로 처음 간행한 것은 후계쓰소치(風月宗知)이나, 이후 요시노야 곤베에(吉野屋權兵衛)에서 이를 포함한 다른 서사의 책판을 인수하거나 조선 봉성정사본을 새롭게 복각하기도 하는 등 당시 일본에서 이 책을 가장 활발히 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고활자판 및 화각본에 참고된 구체적인 저본을 규명하지 못했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 보다 심도 있는 17세기 일본에서의 조선본 『근사록집해』의 수용 양상 연구가 필요하다.

투고일 2020. 6. 23.

심사일 2020. 11. 5.

계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近思錄集解(Jinsiliujijie), 德川家康(Tokugawa Ieyasu), 林羅山(Hayashi Raza n), 蓬左文庫(Hosabunko), 임진왜란(Imjin War), 한일서적교류사(Books Exchanging between Korean and Japan)

Abstracts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Joseon Editions of 『Jinsiliujijie』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Lee, Eu-ry

As a primer on Confucianism, one of the most widely read Confucian scholarships in East Asia, 「Jinsiliujijie(近思錄集解)」 is thought to have been widely read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In 17th century Japan, new knowledge became popular and commercial publishing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looted Joseon Dynasty and typographic techniques during the Imjin War. The overall aspect of acceptance of 「Jinsiliujijie」 also coincided with the overall flow of Japan at this time, and was initially accepted by individuals through the collection of originals, manuscripts, and high-capacity capital. At this time, there were at least two types of Joseon, including Bongseongjeongsa(鳳城精舍) in 1519 and Cheongnyangseowon(淸涼書院) in 1566.

On the other hand, commercial publishing was published after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when the commercial publishing skyrocketed. It is thought that the 12 editions published by commercial publishing were corrected with reference to other publications based on the Korean version. In addition, some forms of nameplates were borrowed from each narrative, regardless of the text.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Korean version, but also three types of nameplates were distributed in Japan.

In addition, it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as a commercial publication, but it was most actively published in Japan at the time, such as Fugetsusochi(風月宗知) of a book version of other narratives from Yoshinoyagonbee(吉野屋權兵衛), or the reprinting of a copy of the Bongseongjeongsa.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not possible to identify the specific texts referenced in the high-capital and wide-angle scrip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is, and further study of the acceptance pattern of the Joseon Dynasty 「Jinsiliujijie」 in Japan in the 17th century is needed.